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0월 1일(금)
--(음력 8월 25일)--
Пятница
1 октября 2021г.
№ 38 (1195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0월 1일은 노인의 날이다. 이날 사할린 여러 곳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사할린 할머니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친애하는 노인 여러분!

10월 1일 국제 노인의 날을 맞아 사할린주의 모든 노인세대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할린 지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활발한 생활을 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그 빛나는 한 예가 노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보건 분야, 사회적 보호, 공공주택사업, 환경보호,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을 위한 많은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노인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음을 실감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60개 이상의 노인 지원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심층 진단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각 지역에 이동 작업반을 조성하고, 보건소, 상점, 문화 및 스포츠 기관, 대중교통을 <사할린 장수> 기획에 연결시켰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편안하고 흥미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인세대 여러분에게 강건함과 다함없는 에너지와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국제 노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사할린 방문

9월 27일(월)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막심 레셰트니코브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한 가운데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만나 온실 가스 흡수와 배출의 특별 규제 설정을 주제로 함께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기후 실험의 현장이 사할린 지역으로 정해진 데 있다.

2025년까지 사할린에 탄소 중립을 달성함으로써 다른 지역에도 사할린의 경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바체슬라브 알렌코브 주 정부 부총재가 발표했는데 그는 일부 석탄 보일러를 가스로 전환하는 데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가스화 작업은 난방 시 온실가스 배출을 2배로 줄이게 된다. 부총재는 탄소 매립 건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2025년까지 사할린주의 조치가 없으면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증가할지, 현명하게 사업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도표로 제시하고,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작업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실험 평가를 위한 그룹이 구성되었다고 그는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시도렌코 주 정부 부총재는 풍력에너지와 쿠릴 열도에서 석탄과 휘발유를 액화천연가스로의 전환, 고품 폐기물의 현대적 매립지 건설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외에도 가스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발표자들 중에는 '사할린 에너지' 로만 다쉬코브 최고 경영자와 '엑손 뱌체가스 리미티드(엑손 석유가스 유한회사)'의 셸리 빌 회장도 발표했다.

막심 레셰트니코브 경제개발부 장관의 방문 프로그램에는 사할린에서 개최되는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 포럼 참가가 있다. 그는 사할린 정보통신 <끓는 점>을 열고, '노동의 생산성' 국립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사할린의 '리고 디자인 트레이딩'과 '프치츠파브리카 <오스트로브나야>' 2개의 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다.

(사할린주 정부 자료에서)

단신

올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선정 대상자 명단 공개

지난 9월 30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사이트에서 드디어 2021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 선정 대상자 명단(개인정보 보호로 앞과 뒷 글자 게재)이 올랐다. 이미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1세대의 동반가족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사할린동포를 통해 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10월 중 금년도 영주귀국 확정자를 대상으로 국내 입국 및 국내 생활 관련 정보 안내할 예정이다. 상세일정은 추후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할린 석유와 가스> 포럼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25회<사할린의 석유와 가스> 극동 에너지 포럼이 9월 28일(화)-30일(목)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스톨리차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국제 석유가스회사의 전문가들을 비롯해 연방 각 부처의 대표들, 사할린주 정부 대표, 생태공학 분야의 전문가들, 학자,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했다. 극동 에너지 포럼의 핵심 중 하나는 '사할린 에너지' 회사와 일본의 '도호 가스'회사가 <사할린-2> 액화천연가스의 일련으로 첫 탄소 중립 설정에 대한 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또한 스베르방크와 주 정부, '극동 및 북극 개발 공사' 간에 중요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협약 내용은 2025년까지 사할린에 탄소 중립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설정에 대한 것이다.

이고리 야무코브, 사할린 비상대책부 장관 대행으로 임명

9월 27일부로 러시아 비상대책부 사할린총관리국 국장으로 이고리 야무코브 내무국 대령이 임명되었다. 그는 사할린주에 부임 전 '국립 위기상황 관리센터'에서 우주정보처리부 부장으로 근무했다.

사할린에서 한국 영화제 열려

유즈노사할린스크를 포함해 러시아의 28여 개 도시에서 <모든 스타> 한국 영화제가 동시에 펼쳐졌다. 9월 29일(수)부터 10월3일(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콤포몰레츠>영화관에서는 한국에서 여러 해에 걸쳐 인기를 누린 영화 9개 작품이 상영된다. '사도'(2015), '가려진 시간'(2016), '살인의 추억'(2017)은 상영됐고, 10월 3일까지 '오직 그대만'(2011), '암살'(2015), '택시 운전사'(2017), '내부자들'(2015), '끝까지 간다'(2014), '영화는 영화다'(2008) 등의 작품들이 사할린 주민들을 기다린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영화제의 주요 목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 영화의 발전을 탐구하고 그 성공의 비결과 가치를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다.

새고려신문

2022년 상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7루블리 0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건강한 몸에 깃드는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학생들을 훈육

9월 27일은 러시아에서 학령 전(유치원 등) 교원의 날을 기념하고 10월 5일은 세계 교사의 날이다. 김 알렉산드르 엔기르비츠(31세)는 이 두 명절에 축하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그는 현재 사할린주 아 니와 시 <스카즈카(동화)> 제8호 유치원에서 체육 강사를 하고 있고, 학교 체육교사, 스포츠학교 사범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다.

"저는 여러 교육기관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체육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생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첫 단추를 꿰게 낀 것처럼 유아들에게 기초를 제대로 닦도록 하면, 아이가 학교에 갈 때는 잘 발달된 운동신경으로 스키를 비롯한 다른 스포츠도 잘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알렉산드르가 말한다.

2019년에 유치원에 체육강사로 취직한 그는 첫해에 아이들에게 스키도 가르치고, 여러 게임과 스포츠 놀이를 익히며 아이들을 위한 주,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항상 좋은 성과를 보이자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경기에 참가선수로 선발되길 바랄 정도로 체육시간이 보람 있다고 한다.

"다양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 적성에 맞고 이 종목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를 골고루 선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렉산드르가 덧붙였다.

<스카즈카>유치원에서는 이런 체

육강사가 있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체육과 스포츠를 즐긴다는 것이 바로 느껴졌다. 유치원에서 스키를 익히다 보니 추위할아 버지에게 새해선물로 스키를 부탁하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학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알렉산드르 선생에게 연락하여 어떤 스키를 사는 게 더 좋은지 상담도 받곤 한다.

알렉산드르에게 그가 왜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냐 물으면 "여기에서는 같은 날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밖에서 보고 신나게 뛰어 와서는 체육수업이 있냐고 물으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제 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직업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스포츠에 대한 제 열정이었고,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하고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따르는 사람으로 양성해야 하므로 현재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 민첩성, 지구력, 속도, 승리의 의지 등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교육자다운 말이다.

알렉산드르는 어릴 적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은 스포츠를 스스로 즐기게 되었다고 한다. 배구, 농구, 축구 등 - 팀 스포츠 놀이는 모두 한다. 성인 선수 2급 자격증을 따냈고 스키, 스케이트, 체조, 쿠도, 테니스, 탁구, 레슬링, 씨름, 롤 등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근육도 그 동안 많



이 키웠다. 근육체질이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 당연히 체육과 관련된 전공을 선택했다. 사할린국립대 스포츠 및 체육과(5년 전문)에 입학하고 이 선택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몸을 움직여야 하는 체육 관련 수업을 정말 좋아했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체육을 어떤 교수법으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무엇을 배워야 항상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자신을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는 것을 깨달은 알렉산드르는 많은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수많은 수료증을 따내는 데 서슴없이 도전해왔다.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알렉산드르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에겐 항상 움직임이 필요하다. 스포츠를 즐기며, 현대댄스 부문에서도 예사가 아니다. 대학

시절에 같은 반 친구와 함께 두эт 댄스를 하고, 직접 여러 현대 댄스 연출도 했다. 댄스로 공연과 경연에도 많이 참가했고 수상한 바도 많다. 사할린 국립대가 주최하는 경연, <대학생의 봄> 사할린 지역 단계, 러시아 최종 단계 등에서도 수상했다.

그는 K-팝도 즐긴다. 한국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한국 노래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아예로빅 강사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유치원 직원들과 학부모들은 이들을 위해 야간 아예로빅 반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알렉산드르는 계속 이 활동도 즐겼다. 얼마 전에 알렉산드르에게는 브레이크댄스 반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와 아마 이 반을 지도하게 될 것 같다고 한다.

몇 년 전부터 알렉산드르는 사할린 한인 사회생활에 참가하게 되었다. 알렉산드르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 처음 데려온 사람은 배영희 선생(아니와 출신, 그 당시 한글학교 강사, 아니와 한인회 임원으로 활동)이다. 이곳에서 같은 뜻을 가진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한인청년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 건강관리프로그램, 어버이날 행사 등 - 모든 행사에 적극 참가하는 것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특히 사할린 한인 청년역사캠프를 할 때 이것을 잘 볼 수 있었다. 필자가 올해 캠프의 첫날 오전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알렉

산드르의 교육, 소통, 가치관, 교수법, 실력 등에 놀랐다. 학생들과의 소통과 학생들의 반응 속도도 엄청 빨랐다. 많이 알고 있어 지도력이 강했다. 그는 사할린, 러시아 포럼, 동포들의 축제 등에 참가한 경험도 많다. 보고 발표도 많이 한다. 그가 좋아하는 말은 '무언가 하고 후회하는 것이 안 하고 후회한 것 보다 낫다.'라는 말이다.

동포사회에서 어울려 활동하게 되었으니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씨름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특별 훈련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 경기에 참가하다보니 여러 번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9월 18일 김치축제 일환으로 진행된 씨름대회에서 그가 우승하여 부상으로 티비를 받았다. 작년에 결혼한 그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아파트도 필요하고 부인이 임신 중이라 준비할 것이 참 많다고 한다.

얼마 전에 그에게는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씨름반을 만들어달라는 제안도 씨름협회에서 들어왔다. 어릴 때부터 전문성을 키워야 나중에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란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는 스포츠와 체육 지도하면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하고 바른 삶을 이끌어가고, 지평해 갈 수 있다고 믿으며 어린 학생들에게도 이를 바탕으로 교육하며 보람을 찾고 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블라디미르 라브두긴, 크림 - 사할린까지 자전거 여행을 마쳐

9월 27일(월) 세계 관광의 날, 알렉산드롭스크 지역에 최초 사할린 박물관 건립 125주년을 기념하는 <체호브의 길로: 크림 - 사할린> 블라디미르 라브두긴의 단독 자전거 질주가 마무리되었다. 이 쉽지 않은 여정이 4월 21일 알타에서 시작된 가운데 러시아 지도에서 체호브의 여행 경로를 따라 1만 2000 km 이상을 뒤로하고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에 도착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정에 동참했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입구에 있는 비석 앞에서는 자전거 선수 그룹이 블라디미르 라브두긴을 만나 조형물 '스타노크'이 있는 장거리 자전거 질주의 종착점까지 도심 축하 거리를 동행했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시행정부에서는 블라들렌 안토노프 시장과 안나 파노와 부시장, 올렉 살란긴 의회 대표가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그간 자전거 질주에 조직적 정보 제공으로 지원을 수행한 '체호브와 사할린 '역사-문학 박물관' 관장 테무르 미로마노브가 기념사를 하며 기념 컵을 수여했다.

블라디미르 라브두긴은 답사로 모인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벽차오르는 감정을 전달하며,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많은 기념사진을 찍고 소소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축하를 마무리했다고 박물관 측이 전했다.

Владимир Равдугин завершил велопробег Крым — Сахалин

27 сентября, во Всемирный день туризма, завершился одиночный велопробег Владимира Равдугина "Дорогами Чехова: Крым — Сахалин", посвященный 125-летию основания перв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 в посту Александровском. Старт непростого путешествия состоялся 21 апреля в Ялте, позади более 12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соединяющих крайние точки чеховской карты России. За ходом путешествия следило множество людей.

Группа велосипедистов встретила Владимира Равдугина у стены на въезде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а затем сопровождала в торжественном поезде по улицам города к финишной точке этого длительного велопутешествия в типологической постройке "Станок".

Со словами приветствия о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йона выступили и. о. мэра Владлен Антонюк, вице-мэр Анна Пано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брания Олег Салангин.

От лица историко-литературного музея "А. П. Чехов и Сахалин", осуществлявшего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и организационную поддержку велопробега, выступил Темур Миromanов, вручивший памятный кубок.

В ответном слове Владимир Равдугин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собравшихся, поделился переживаниями его эмоциями. В теплой дружеской атмосфере была сделана масса памятных фото, и праздник завершился небольшой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ой, сообщает музей.

'걷기의 날'을 맞아 페인트볼과 다트, 대장간에 사할린 주민들 초대

'걷기의 날' 체육 행사가 10월 3일(일)에 '고르니 위즈두흐' 스포츠·관광 단지에서 열린다. 체육 및 오락 활동이 아래 역에서부터 중간역까지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오전 10시-13시 사이에 행사 구간을 방문할 수 있다. 전 코스에서 열리는 스포츠 문화행사의 참가자들을 상호작용 행사장, 페인트볼, 밧줄 타고 이동하기, 다트, 보드게임 등 오락 프로그램이 기다린다.

행사를 통해 사할린 주민들은 진짜 대장장이가 되어볼 수 있으며, 모루판에서 동전 모양도 만들어 보고, 또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상장도 받을 수 있다.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우승자들에게는 행사 협력 측에서 증서를 수여한다.

В День ходьбы сахалинцев ждут пейнтбол, дартс и кузнечное дело

Физкультур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ень ходьбы" состоится 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3 октября. Физ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активности пройдут от нижней до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Гости смогут пройти по маршруту в период с 10:00 до 13:00. Участники 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ого событи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маршрута ждут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и развлечения-

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 том числе пейнтбол, веревочная переправа, дартс,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и др. .

По итогу мероприятия островитяне смогут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настоящими кузнецами и выковать жетон участника на наковальне, а также получить дипломы от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России". Победителей интерактивной программы ждут сертификаты от партнеров,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минспорт.

사할린 주민들 '과학 영화의 날'에 참여

실용과학 영화 축제 측이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할린주에서 조성되는 '과학 영화의 날'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행사 기획은 문화부, 러시아 연방 과학·고등교육부, 러시아 연방 교육부가 진행하며, 과학 기술의 해 공식 행사 목록에도 포함돼 있다. 이 기획에 사할린 지역의 문화-계몽 및 교육 기관들도 참가할 수 있는데 참가를 위한 신청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획 공식사이트에서 제출할 수 있다.

이 기획은 미리보기로 과학 기술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축제 팀은 '로바첸스키 공간(2019년, 러시아, 독일)', '로보트, 난 널 좋아해(2021년, 러시아)' 등 러시아 영화들을 비롯해 16개의 창작 영화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스스로 마음에 드는 영화들을 선정하여 시청함으로 행사장의 상영 횟수를 결정하게 된다.

우주와 인공지능, 유전공학, 생태학과 수학 등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들을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다.

2020년에는 이 기획에 14개 작품들이 참가했다. 감염병 상황과 관련하여 과학 영화의 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렸다. 이 영상들은 150만 이상의 조회수를 얻었고 주 도서관 측이 전했다.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Днях научного кино

Фестиваль актуального научного кино открыл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Днях научного кино, которые состоя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ериод с октября по декабрь 2021 года.

(7면에 계속)

사할린, <새들이 구름 위를 날아간다>한반도 현대미술전시회 개최

9월 24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주 미술박물관에서 <새들이 구름 위를 날아간다> 미술 전시회가 열렸다. 사할린에서 박물관 사업 125주년 맞아 이번 전시회에는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반도의 공예, 도자기, 그림 등 작품 200여 점이 출품되었다.

전시회 큐레이터인 주 미술박물관 총 학예연구가 하이 올가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한국 이철수 목판화가의 작품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길>을 보고 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그림에는 다음과 같이 써있다. '새들 하늘길로 가고 오네. 미움 없고 다툼없고 그리움도 없이 가고 오네.'

이번 전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품과 대한민국 작품 총 192점이 소개되었고, 예술에서는 국경 없이 한반도의 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전시회에는 20-21세기 장인들이 제작한 한복, 도자기, 그림, 하회탈, 서예작품 등이 출품되었다.

1990년에 사할린 미술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수대 현대 화백들의 미술 전시회가 처음 열렸는데 그때 출품된 작품 100여 점이 미술관의 한민족 첫 소장품이 되었다. 이 작품은 조선미술 상설 전시관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민족의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한 분은 바로 미술박물관의 초대 관장 라이사 고로호였다. 이날 개막식에서 그는 31년 전의 일을 회상하며 한민족 작품 수집과 관리와 전시를 잘 이어가는 하이 올가 학예전문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첫 전시회 이후 미술박물관에서 여러 번 조선 공화국 미술가들의 공예, 수예, 미술 전시를 개최했고, 2008년 처음으로 한국 한복 전시회를 열었다. 그때 한국한복협회(회장 이준자)에서 전시한 한복 일부를 사할린 미술관에 기증했다. 그 이후에는 한국 서예가들의 전시, 한지 전시, 한국 이명호 현대 화가의 개인전이 열렸고 2016년이 임방울 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채)의 협조로 한국미술 전시회를 열었으며, 진흥회 측에서 전시회에 출품된 한국 문인화 28점 및 강진청자 18점을 사할린주립미술관에 기증했다. 나중에 이 기증품 일부가 조선공화국 작품 상설 전시관에 전시되어 전시관 이름을 한반도 예술 전시관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렇게 차츰차츰 모여지는 한민족 작품으로 현



재 700여 점의 작품이 소장돼 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상설 전시품 말고 박물관 보관소에 있는 소장물들로 조성되었다.

이날 전시회 개막에는 사할린문화부 논나 라브리크 장관, 주 미술박물관 올가 무라토와 관장, 주미술박물관 라이사 고로호와 초대관장, 러시아 외무성 블라디미르 노소브 사할린 대표,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 등이 전시 개막을 축하하며 좋은 감상이 되길 기원했다.

문화부 장관은 이날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기념 명예 훈장을 무라토와 관장, 하이 올가 총학예연구가를 비롯해 미술박물관 일부 직원들에게 수여했다. 미술박물관 측에서는 그 동안 한반도 예술작품 수집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한 기관, 단체, 개인 후원자 등에게 감사장을 전했는데 새고려신문사에게도 역시 포상했다.

전시 개막은 하이 올가 큐레이터의 전시 작품들 소개와 재미있는 작품의 역사적 배경 설명으로 이어졌다. 한반도 미술·공예전시회는 11월 중순까지 열린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한인사회계 소식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1세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 실시

지난 9월 25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사할린 한인1세들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이번에 사할린주 한인청년회 회원들이 전문의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의 맥을 찾아갔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 행사장을 찾지 못한 어르신들을 먼저 방문하고, 나중에 날을 정해 한인문화센터에서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이 전했다. 이날 어르신들에게 쌀과 작은 선물을 선사하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번 주말에도 어르신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주최 측이 전했다.

1세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은 3년전부터 한국 보건부, 한국 국제의료보건의재단과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청년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카로브 한인회, 주두마로부터 기념패 받아

9월 25일(토) 마카로브시가 도시의 날을 기념했다. 이날 다양한 공연과 공연, 오락놀이 등이 펼쳐졌고 많은 축하인사가 전해진 가운데 마카로브시 한인회(고영순 회장)가 사할린 주두마의 기념패를 받았다.

마카로브 한인회는 많은 활동을 하며 도시의 여러 행사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상 주한인협회, 마카로브시와 함께 <우리는 함께>라는 연례 민족 간 축제를 추진하고 있다.

주 한인협회, 김치 및 비빔밥 체험교실 진행

지난 27일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주 한인협회 주최·주관으로 김치 및 비빔밥 만들기 체험교실이 진행되었다. 9월 27일 세계 관광의 날을 맞아 이 체험교실에는 사할린주 관광청 및 여행사 대표들이 참가했다. 현재 사할린에 방문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조사를 하고 있는 관광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역 방문객들이 이런 활동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 온 교육자의 사할린의 9월 회상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이 글은 한국교육원이 아닌 '한국에서 온 교육자'의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9월을 보내며 그 의미가 크고, 넓어 몇 장면 적어봅니다.

첫째는 김치축제와 아리랑 공원의 탄생입니다. 처음으로 가가린 공원에서 열린 김치축제는 참으로 성대했고, 짜임새 있고, 흥겹고 가슴 뭉클하며 신나는 축제였습니다. 사할린 한인회의 다년간 경험과 협력의 노고가 반짝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내 한민족의 문화가 사할린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전체의 삶과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저는 막걸리라도 담가 지원하고자 박영자 단장님과 시간 맞춰 막걸리를 담가서 축하 겸 막걸리 홍보를 했습니다. 또 아리랑 무용단과 함께 무대에 올라 트로트 백댄서도 했습니다. 민속놀이 투호의 달인임을 시범으로 보였고, 춤도 신나게, 흥겹게 추었습니다. 가을색과 김치 빛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막걸리를 맛본 현지 러시아인 한 분은, 막걸리를 가족들에게 맛보게 하고 싶다고 했으나, 남은 게 없어서, 며칠 후 다시 담가 보드카병에 담아 드렸습니다. 추석이래 강정도 덤으로 드리구요. 따님 생일에 맛본다고 하였는데, 사진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아리랑 공원은 사할린 한인인을 위한 사할린과 시정부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한인사회가 사할린에 기여한 노고와 공로, 건설적 역할에 대한 상징적인 인정의 증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리랑 정자에는 사람들이 지나다가, 혹은 찾아와서 기념사진을 찍을 정도로 인기가 높고 사람들의 발걸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래된 꿈이 이루어진 기쁜 사건이라 여겨집니다.

둘째는, 아니와시 도시의 날 행사에 갔었습니다. 한글학교 배영희 선생님의 초청이었는데, 아니와 부시장님과 문화센터 앞에 우정의 나무로 소나무를 심었고, 이원도 한글학교장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도시의 날이라 한복을 입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울긋불긋 한복을 입고 계셔서 놀랍고도 참 고맙습니다. 아니와의 모든 공공기관, 회사, 학교, 각 민족 구성원들이 행진을 하는 모습, 단상을 지날 때 올 한 해의 업적 등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인상적이고 교육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에 누가 사는지 알고, 서로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여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김치 코너에서 한인회 강사님이 여러 손님들에게 김치 담그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한글쓰기 코너가 운영되었으며, 저는 팽이치기, 제기차기, 활쏘기 등을 시범해 보였습니다.

셋째는, 사할린 한인회 여성회 소풍에 동반한 것입니다. 아니와 바닷가에 자리잡고 웃으며 친목을 다지고, 식사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민속춤 교실에서 배운 것도 같이 추고, 초청 악단 밴드에 맞춰 추기도 하고, 초대손님의 플라멩고 춤도 보며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려 5시간을 자리에 앉지 않고 노래에 맞춰 춤추고 우리가 가져 간 밀양아리랑, 왈츠 음악에 춤추고 그랬습니다. 물끄러미 멀리서 바라보는 러시아인 한 분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있었을까요? 중국 역사책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바라보던 중국인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이족은 가무를 잘하고 활을 잘쏘며, 추수가 끝나면 밤새워 춤추고 논다."고.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는 아직도 노래방이 잘되고, 노래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활도 잘 쏩니다.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떠났으니 아마 6시간 이상은 그렇게 춤추셨을 겁니다.

넷째는, 제겐 좀 쓸쓸한 추석이 있었습니다.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민속놀이 체험 시간을 이를 동안 가졌습니다. 교육원뿐 아니라 문화센터에 들어 오는 모든 분에게 개방을 했는데,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후 잊어버린 민속놀이의 규칙을 공부했고, 비석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습도 해야 했습니다. 투호는 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지요. 그때 모스크바의 고등경제학교 대학생들이 사할린의 한인사회, 한국어 등을 연구하려고 한인회에 방문했는데 이 연구팀원들이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저도 그만 영어로 인터뷰를 1시간이나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섯째, 모스크바의 NTV 방송이 유명 프로그램의 9주년 생일 축하를 위해, 사할린의 체부라슈카 유치원에 왔는데, 한복을 입은 아동들이 한국말로 부르는 동요와 율동, 생일 축하 노래를 취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스크바가 극동의 사할린으로 달려 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모스크바 고등경제학교의 연구팀이 한인사회 연구를 위해 사할린으로 달려와 취재하고, 며칠 후 모스크바의 TV방송이 한복을 곱게 입은 한국어 노래로 생일 축하 받으러 온 것입니다.

모스크바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사할린 한인에게서 본 것은 아닐까요? 저는 10월 초순에 워크숍을 위해 모스크바에 갑니다. 이미 구면인 연구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 아닌가요? 참으로 신기 방기한 9월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9월의 인상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교육의 입장에서 삶을 바라보는 한국의 교육자에게 너무나 감사한 정경들이고 배울 것, 나눌 것이 너무 많아 그냥 지나가기 아쉬운 9월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배움을 주신 사할린 한인사회와 관련된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치축제에 관한 시조를 하나 지었습니다. 잘 쓴 것은 아니지만 소개합니다. 시조는 '고유의 형식'을 가진 한국의 고유한 '정형시'입니다.

사할린 김치축제

이병일

가을 하늘 파랗게 열려 한가위 품에 달려 온다
봄꽃처럼 설레는 빨간 마음 손길이 망설임 없구나
어화라, 김치 보쌈에 술 익는 사할린, 오늘날 같아라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Опубликован список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30 сентября 2021 г. на сайт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список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2021 года.

В информаци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на сайте, также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граждане, чьи родители, проживают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будут уведомлены Красным Крес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ерез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1 поколения.

Информация о въезде и дальнейшем проживании в РК для граждан, включенных в список, будет сообщена через сайт Консульства в октябре 2021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а программа «Здоровье» для пожилых корейцев

25 сентября 2021 г.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1-го поколения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р.), проживающ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могли пройти программу «Здоровье».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на дому были посещены 25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ые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не смогут принять очное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которое пройдет чуть позже в городе. Пожилых людей осмотрели врачи-специалисты, были вручены небольшие подарки. Позже им будут вручены необходимые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Как сообщили в РООСК, в городе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20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се они смогут до конца ноября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грамме.

Программа «Здоровье» проходит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молоде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прошел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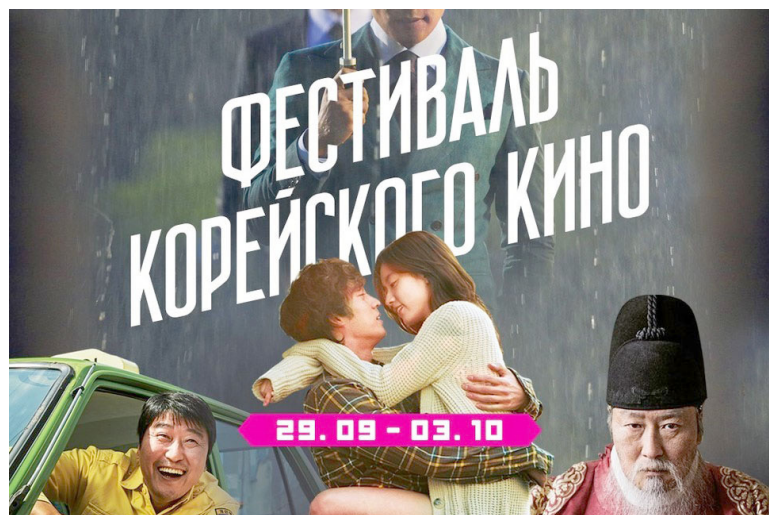
27 сентября в День Всемирного дня туризм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вела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имчи и бибимбап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уристических агентств. Все участники остались довольны и уверены, что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могут привлечь много желающих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таком колоритном событ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уристической сферы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опрос о включении мастер-классов п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в программу пребывания туристов на острове

(Наш корр.)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проходит на Сахалине

Фильмы из программы фестиваля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Все звёзды» можно увидеть с 29 сентября по 3 октября в ККЗ «Комсомолец»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каз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проходит в 28 российский городах.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главная задача фестиваля – исследуя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десятилетий, показать, в чем заключаются секрет его успеха и ценность для зрителя.

Инициаторами фестива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ступили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и кинодосуговое объединени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учреж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е зрители уже могли увидеть фильмы «Трон» (2015), «Исчезнувшее время» (2016), «Воспоминания убийцы» (2017). До 3 октября любителям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предлагается к просмотру следующая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Все звёзды»:

- 01.10.2021 - Всегда, 2011
- 01.10.2021 - Убийство, 2015
- 02.10.2021 - Таксист, 2017
- 02.10.2021 - Инсайдеры, 2015
- 03.10.2021 - Трудный день, 2014
- 03.10.2021 - Несмонтированный фильм, 2008

«Птицы парят в облаках...»: выставка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проходит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В экспозицию включены около 200 экспонатов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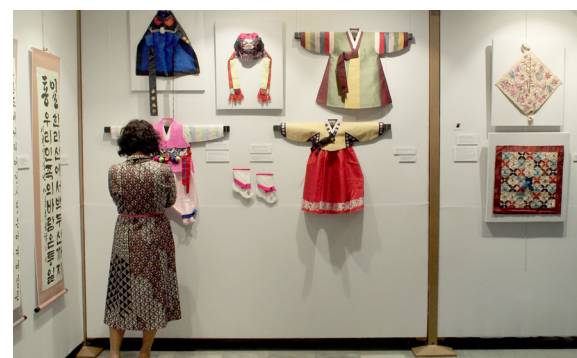
Название новой выставке дала строчка-комментарий к картине современ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рафика И Чоль Су «Небесный путь, где парят птицы». Как и свободные странники - птицы, искусство не имеет границ, не должно иметь. И если на карте мира с послевоенных лет существуют два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а, то в музейных запасниках и витринах драгоце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творцов, говорящих на одном языке, рядом и вместе. Но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Сахалину, волей историческ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ставшему второй родиной корейцев, так было не всегда. Официальным поводом для выставки было желание перелистать хронику – о том, как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в течение тридцати лет собирал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рейских мастеров. Как это было дорого и непросто, но удалось мало-помалу коллекцию собрать, одолеть препятствия, обрести на этом пути друзей и меценатов, потому что было горячее стремление приобщить островитян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цев, но и все население) к национальному достоянию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Что этот сегмент должен непременно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в собрании молодого музея в регионе, где издавна проживает больш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омнений не было. В 1990 году с выставк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Мансудэ» более 100 предметов получили сахалинскую прописку благодаря настойчивости первого директора музея Раисы Гороховой, убедившей областное управление культуры, что это жизненно необходимо («чего хочет женщина, того хочет Бог»). Так была создана основа, и дальнейший период накопления был эффективным: музейная коллекция охватила широкий спектр – пейзажная живопись и каллиграфия, вышивка и керамика, резьба по дереву и камню, изделия из бумаги ханчжи, национальная одежда и лаковая мебель... Однако почти двадцать лет музейный зал искусства Кореи (весьма скромный по размерам) был, если уж точно говорить, монополией мастеров КНДР. Но все время ее «подтачивало» желание музея и другой стороны – южнокорейской – добиться баланса. В 2008 году произошел прорыв – состоялся совместный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ыставочный проект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ханбок», по завершении которого часть экспонатов-гостей осталась в островном музее. И потом все последовавшие собы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фестивали, выставки), стараниями музейщиков из года в год пополняли коллекцию.

Выставка «Птицы парят в облаках...» населила большой зал работами современных мастеров (XX – XXI вв.) с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нельзя упустить шанс полюбоваться ими, такие выходы бывают нечасто в силу крайней скудости экспозицио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Корейские художники и мастера 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бережно следуют заветам предков. В отличие от европейской традиции копирование работ мэтров на Востоке не является чем-то предосудительным, но считается высокой честью и способом сохранить шедевры древности, материал которых – шелк, бумага – время не щадило. Так в 1960-х года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художники повторили работу графика XVIII века Чон Сона «Весенний дождь», чей стиль обозначил поиск 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чала,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китайского влияния. Исполненный тушью, прозрачно-легкий свиток с изображением ученого на ослике в дымке тумана, под веером плакучей ивы воплотил суть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 тишина, камерность, утонченность чувств. Для корей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пейзажная живопись была «религией» – такой эпитет не кажется пафосным в устах куратора выставки, главного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музея Ольги Хай, благодаря энергии которой искусство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Кореи, Китая, Японии и др.) открывается островитянам в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арт-проектах музея во всем разнообразии и уникальности.

Экспонаты выставки «служат» одновременно и шедеврами, и свидетелями истории. Посетитель словно попадает в аристократический корейский дом, проникаясь деталями жизни – чем корейцы украшали свой быт, что носили, какие заповеди читали, что стояло на столе, чем играли дети.

В вазы, исполненные в технике селадон, не



ставят цветы. Эта изысканная, хрупкая красота, переливающаяся гладь серо-зеленого цвета, изобретенная в X веке, во времена династии Корё, самодостаточна, никакой прагматики. Исключение – лишь для ветки сливы (мэйхуа), которая в Корее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мудрости, весны. На фоне селадона, который называли керамикой королей, чудом света, словно бы простоватой, но полной собственного обаяния кажется посуда «мак сабаль» («грубые чашки»), которая служила по прямому назначению крестьянам и ремесленникам – для еды и питья. В стране, где монахи культивировали чайную церемонию, отличную от японской или китайской, у всех сословий была потребность в чайной посуде: образец народной керамики «онги» воплощен в чайном сервизе Ли Хак Су с характерным названием «Отец. Грубая, суровая жизнь».

Роскошные современные образцы корейских костюмов радуют глаз: красный цвет символизирует удачу и богатство. Одежду и украшения хранили в коробках из ханчжи – бумаги, изготавливаемой из коры тутового дерева. Спрос на эту многотрудную ручную технологию за века не упал, а напротив, развился – из ханчжи делают мебель, одежду, скульптуру, кукол, циновки, военную амуницию.

В старину празднич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не обходились без масок хахве, которые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образц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зчика по дереву Дэ Ён Хвана.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мплект грубоватых, но очень выразительных деревянных «ликов» помог актеру ярче сыграть разнообразные типажи (дворянин, невеста, монах, человек, вмешивающийся в чужие дела, дурак, мясник и др.). А творчество Бён Чхан Хона и Бён Чжи Сэна – это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й полюс. Жанр «согак» означает каллиграфию в камне или дереве. На изысканных пластинах из лакированного дерева, предвещающих вход на выставку, записаны главнейшие конфуцианские добродетели, в частности сяо (сыновняя почитательность), которую мудрец почитал смыслом человеческого бытия и основой семейной жизни.

– Эти годы мы прожили не зря. Наша коллекция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возросла со 100 до 700 предметов, – сказала Ольга Хай. – Нынешняя выставка – лог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постоянной музейной экспозиции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торая продолжает расширяться. Мы можем сегодня формировать выставки для муниципальных и даже федеральных музеев. Например, в 2018 году мы провели выставку «Духовные горизонты. Искусство Коре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музее истории религии. У нас планов – громадье. И если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егодня скажет, что завтра выделит деньги, знайте: у нас есть идеи, готовы концепции выставок и сметы, мы всегда на старте.

Слова эти, обращенные на вернисаже к министру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области Нонне Лаврик, будем надеяться, не останутся без ответа.

Марина Ильина,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Фото Ли Е Сик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МИД России: Мы всегда поддерживали прямой диалог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реи

Россия всегда поддерживала прямой диалог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реи, но не всегда за это выступала представляющая американ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которая хотела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весь процесс. Как сообщает ТАСС, об этом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ергей Лавров, выступая 25 сентябр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 итогам визита в Нью-Йорк на 76-ю сессию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ОН. Он отметил, что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готовность нынешн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ША идти на конструктивные шаги «по поощрению» нормальных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нечно, пуски ракет не помогают, но мы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в Сеуле на этот раз стремились не драматизировать эту ситуацию»,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Лавров. Он назвал такой подход правильным, поскольку публичные осуждения сокращают стимул к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у диалогу. Итоговая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может быть достигнута только через доверительные тихие переговоры, а не через обвинения друг друга через микрофон», - заключил глава российского МИД.

Пхеньян за объявление об окончани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и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Пхеньян может объявить об официальном прекращени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как предлагает Сеул, и даже обсуд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если Юг будет относиться к Северу «беспристрастно» и с взаимным уважением.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от имени заместителя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пропаганды и агитац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им Ё Чжон,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25 сентября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На Юге ощущается «непреодолимо сильное» желание вывести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з тупика и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достичь стабильности. У нас есть такое же желание»,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В нём также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только при «сохранении беспристрастности и уважения друг к другу» может быть «гладкое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Между тем, со стороны Сеула является «нелогичным» подвергать критике «политику самообороны», проводимую Пхеньяном, «при этом приукрашивая соб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по наращиванию военной мощи как средство сдерживания Севера», - отмеч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В нём выражена надежда на то, что Сеул откажется от «двойных стандартов, враждебной политики и предубеждений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а». Только в этом случае станет возможно устранение всех возможных причин,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дорвать взаимное доверие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Заявление было сделано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хеньян сообщил, что недавнее предло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объявить об официальном окончани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53 годов является «замечательной идеей», и Север готов обсудить улучш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если Сеул откажется от враждебной политики.

11% общего числа станций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в РК поддерживают сеть 5G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связи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1 млн 470 тыс. базовых станций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и лишь 162.099 из них, или 11%, поддерживают сеть 5G. При этом на долю пользователей 5G приходится 23,8% пользователей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Они жалуются на медленное соединение, плохое качество связи и низкую скорость передачи данных, которая гораздо ниже заявленной. Ранее в этом году пользователи 5G подали групповой иск к трём основным операторам связи - SK Telecom, KT и LG Uplus - с требованием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ые услуги. Операторы договорились установить в отдалённых районах страны совместные базовые станции 5G, чтобы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связи. Обеспечить покрытие сетью 5G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планируется к концу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стал лидером Netflix в 14 странах

Мини-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вышедший недавно на платформе Netflix, стал перв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артиной, занявшей первое место в США. Согласно рейтингу, опубликованному 22 сентября на сайте Netflix Flix Patrol,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опередил прежнего лидера в США «Половое воспитание». Помимо США и РК,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лидирует в рейтинге Netflix ещё в 12 странах, в том числе в Гонконге, Тайване, Вьетнаме, ОАЭ, Кувейте и Сингапуре, а в 39 странах занимает 2-е место. Сериал также занял 2-е место в мировом рейтинге телешоу. В нём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 секретной игре на выживание, в которой люди, чья жизнь зашла в тупик, рискуют своей жизнью, чтобы выиграть огромный денежный приз. Критики отмечают масштаб декораций и великолепный актёрский состав, а также безупречную работу режиссёра Хван Дон Хёка.

(RKI)

От Тумангана – до Сочи

6 сентября в Москве стартовал и 18 сентября в Сочи финишировал автопробег,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объединением 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клубов (ОКБК). В пробег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 России, Кыргыз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Туманган — бурная, непокорная река. Она отделяет Корею от России и Китая.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столетия и особенно в начале этого века для многих корейцев путь через Туманган был единственным, который давал возможность уйти из покоренной страны, захваченной японскими колонизаторами.

Никита Ан, президент ОКБК, Уссурийск:

— Акция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расширение границ 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ОКБК. Но нам хотелос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овыми людьми на европейской части России, ведь мы живём в одной стране и нас связывает много общего. Во время автопробега всех городах следования мы встретили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Основная цель - расширение границ ОКБК в южном регионе России. Девиз автопробега "Зов предков" — убрать все красное. 160 лет назад корейцы стали поселяться в России, и Туманган до сих пор является для них печальным образом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Автопробег прошёл без приключений, все было отлич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в автопробеге, это когда люди понимают друг друга, и оно сложилось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и сохранялось все дни путешествия.

Такие поездки сближают людей, здесь можно понять кто есть к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друзья. Например, с Василием Леонидовичем Кваком познакомился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втопробеге в 2014 году, и уже восьмой год дружим, для меня он авторитет как человек, спорим, дискутируем, иногда бывают словесные перепалки,



н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и поддержка скрепляют нашу дружбу.

Самым сложным отрезком пути был серпантин на Сочи, думали что 300 км проедем за 4 часа, оказалось намного больше. Но главное, осуществили задуманное, везде побывали, везде нас хорошо встречали, это приятно! Впечатлил Крым. Это то место, куда хочется вернутьс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мечтаю совершить автопробег в Чечню, Дагестан, посмотреть весь Кавказ в течение дней двадцати. Приглашаю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Говард Син, Киргизия:
ОКБК объединяет 9 бизнес-клубов, 6 стран, 300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Основная цель — создание единой площадки высок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и высоконравственных лидеров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коммуникаций, дружеского обмена дел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автопробега созданы два бизнес-клуба: в Ростове-на Дону и Краснодаре. Нов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лубов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предстоящем бизнес-форуме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ей, опытом работы, совмест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азвития бизнеса и организации новых проектов. Помимо формирования площад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лидеров, есть и другая не менее важная миссия. Духовное наследие первых корейцев-переселенцев в российское Приморье нам нужно сохранить и приумножить. Никите Ану удалось совершить прорыв в активизации бизнес-клубов на русскоязыч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и это останется в истории! Эльза Бажора, спецкор медиа-групп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ин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557 руб. 0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2020 год стал рекордным для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1» и «Сахалин-2» по добыче газа

Более 30 миллиардов кубометров – это самый большой объем за всю историю проектов соглашения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СРП). Об это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явил в ходе 25-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дал старт крупнейшему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энергетическому мероприятию, выступив с докладом в рамках пленарной сессии. Открытие конференции состоялось в торгово-деловом центре «Столиц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 словам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о 2025 года в регионе прогнозируется сохранение уровня добычи газа с ежегодным объемом 29 миллиардов кубометров. Это на 1,5 миллиарда кубометров в год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ую пятилетку.

На полях форума глава региона рассказал о работе по созданию «Сахалин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д объект выделен участок площадью 70 гектаров. Еще столько ж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действовать в будущем. В парке появятся более тысячи рабочих мест. В связи с этим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го жилого массива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к объекту.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в проект составит 18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Он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локализацию нефтегазовых сервисов и довести их долю с 5 до 25 процентов.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рассчитывают, что предприятия технопарка будут обслуживать все основные действующие нефтегазовые мощн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запущена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ая база. Свое намерение стать резидентами парка подтвердили 13 компаний. К примеру, «Эр Ликид» запланировала организацию хранения и отгрузки сжиженного азота, «Сахалин Турбина Сервис» откроет предприятие по ремонту динамического 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а «Интра» создаст производство композитных материалов, оборудования и расходных материалов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работ методом безостановочного ремонта.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тем выступле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стала реализаци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эксперимента.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ообщил, что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его проведении уже внесен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принять его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 Сегодня мы находимся в точке поворота, в процессе изменения структуры экономики и энергетики. Опираясь на созданную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ую и кадровую базу, мы готовы к решению амбициозных задач. В их числе – достижение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5 году, развитие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и водородных технологи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рамках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эксперимента будут продолжены рабо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воздуха в регионе. В области переводят на газ угольные и мазутные котельные, стимулируют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лектрических и газовых авто, ликвидируют незаконные свалки и внедряют раздельный сбор мусора.

«Зеле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недряют на крупных производствах. Так, «Восточная горнорудная компания» в этом году вводит конвейер,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отказаться от перевозок угля автомобилями. Это существенно уменьшит количество пыли и вредных выбросов от грузового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Еще один важный инструмент достижения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 активное развитие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Яркие примеры таких проектов – ветропарки мощностью 67,2 и 200 мегаватт,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ют построить на Сахалине «Восточная горнорудная компания» и «НоваВинд».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оявится сеть станций на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ах энергии суммарной мощностью 42,5 мегаватта.

Кроме т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Росатомом и французской компанией «Эр Ликид» прорабаты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одорода из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с «Газпромом» о выделении метана в качестве ресурсной базы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ервого этапа проекта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30 тысяч тонн водорода в год.

– Сахалинский пилот крайне востребован страной. Это прототип клима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который будет иметь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развития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 берет на себя задачу по достижению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В этой работе региону повезло – у островного губернатора есть видение процесса. Россия начинается с Сахалина. Очень логично, если ответ на главный вызов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ближайшего десятилетия будет найден именно здесь, – рассказал Анатолий Чубайс, спе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связям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целей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 Сахалин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 это пример для всей страны. Его еще предстоит реализовать. Проект отраслевого закона находитс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и по итогам последних обсуждений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какие-то вещи еще отработаем. Сахалин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 это уже следующий уровень углерод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он идет

в развитие базового закона, который только сейчас принимается. И другим регионам надо внимательно изучать опыт Сахалина и составлять свои углеродные балансы, –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Максим Решетников.

В рамках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эксперимента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вместно со Сбером создаст систему торговли углеродными единицами, без которой «зеле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региона невозможна.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уже начата. Прототип такого реестра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 в конце этого года, а первую сделку сахали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сти в середин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Кроме того, во время форума стороны подписали «дорожную» карту мероприятий, как дополнение к соглашению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фере декарбонизации, заключенному на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 2021.

– Мы продолжаем ак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ервым регионом страны, который объявил об амбициозных планах по достижению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Вместе мы должны обеспечить переход области на траекторию устойчивого низкоуглеродного развития, сформировать региональную систему торговли выбросами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и интегрировать её в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истемы торговли,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Сбербанка Андрей Черкашин.

Отметим, крупнейшее международное энергетичес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лилось до 30 сентября. В офлайн и онлайн режимах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600 человек. На площадках форума ежегодно вырабатываются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по развитию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а и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укрепля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тупил на пленарной дискуссии форума «ProДФО»

Губернатор рассказал о климатическом эксперименте, газификации и переходе на раздельный сбор мусор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России стал площадкой для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эксперимента. Добиться баланса выбросов и поглощений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мерена в 2025 году.

– Но климатическая повестк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еще и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ближе всего к людям. Это чистота воздуха, воды,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мест отдыха,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хотим, чтобы в дом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место угля пришел га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в нашем газодобывающем регионе уровень газификации составлял 14 процентов. Сейчас – 50 процентов, а к 2025 году будет 100.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м топливом отдаленны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мы развиваем технологии СПГ.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работает малотоннажный завод СПГ «ПСК Сахалин» мощностью 12 тысяч тонн/год.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его мощности увеличатся вдвое. В 2023 году Газпром планирует запустить свой малотоннажный завод СПГ мощностью 24 тысяч тонн/год с перспективой увеличения до 64 тысяч.

Природный газ – не только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й, но и экономически выгодный вид топлива. К примеру, на отоплении частного дома семья экономит в среднем 4 тысячи рублей ежемесячно. А на Курилах переход на СПГ при выработке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позволит сэкономить не менее 7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год. Снижение выбросов углекислого газа при этом сократится на 30 процент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азвивается также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ая транспорт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Сейчас на Сахалине действует 36 зарядных станций, и с начала года число владельцев электрокаров увеличилось на 60 процентов.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обрести 115 электробусов дл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Еще одно важнейшее направление – ликвидация незаконных свало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брали 2,5 тысячи свалок, которые копились на островах десятилетиями.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ликвидировали еще более 500 вновь образованных скоплений мусора. Любый житель области может рассказать об обнаруженной свалке – ее занесут на цифровую карту и уберут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Во всех дворах оборудованы современные контейнерные площадки. Сахалин переходит к раздельному сбору мусора. До конца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эту технологию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все районы.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благодарил жителей за то, что они с энтузиазмом подхватили эту инициативу – контейнеры заполняются очень быстро. Часть отсортированного мусора направляется на переработку на материк, часть – местн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На пленарной дискуссии «Экология власти: зеленые стандарты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будущее ДФО» выступ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Григорий Куранов.

–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казало, что примерно 10 процентов людей мусорят всегда, 20 процентов – не мусорят никогда. Оставшиеся 70 процентов ведут себя так, как и общество. Если на улице чисто, они мусорить не станут, а если грязно, то могут выбросить бумажку на улице. Заслуга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мэ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что вы создали экологическую нишу, вну-

три которой людям не хочется мусорить. Вы не просто навели порядок, но и обеспечили условия, чтобы была чистота, – сказал Григорий Куранов.

Ухоженност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отметила и участница форума – журналист,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регионального телевизионного канала «Забайкалье» Дарья Пьяникова.

– Я вчера гуляла по городу, пыталась найти мусор и – честно – не нашла. Я встретила женщину-дворника, она была в наушниках, слушала музыку и немного пританцовывала. Я ее остановила и поблагодарила за чистоту. Она сначала опешила, а потом засияла улыбкой. Предлагаю по всему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провести флешмоб «Скажи спасибо дворнику», – поделилась она.

В дискусси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а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медиашкол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портер»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ДФО, которые учатся сейчас на Сахалине. В формате онлайн к разговор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РФ Ольга Латыно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оссийского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Рашид Исмаилов и управляющий директор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Василий Потемкин.

Отметим, что в форуме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бизнеса, С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сообщества. Экологическая повестка в эти дни стала основной также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энергетическом форуме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и на площадке «Точки кип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е.

Самая восточная в России «Точка кипения» откры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Площадка организована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Её главная цель – формирова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траекторий студент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позволяющих за короткий срок овладеть необходимыми компетенциями.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инист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Максим Реше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вопросам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митрий Песков 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

– Уважаемые студенты, вы живете в уникальное время. Именно сейчас закладываются основы под процессы изменения структуры экономики,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переход. Когда вы закончите университет, вы уже будете жить практически в другой реальности. И мы будем вместе с вами ее строить. Я очень рад, что «Точка кипения» теперь открыта и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и это именно то место, где вы сможете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амбициозные иде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аша «Точка» уже в определенном смысле уникальная. Она самая восточная в стране. Но секрет таких площадок в том, что среди них нет главной. Каждая может стать лидером в своем направлении и у вас есть все шансы стать первыми. Например, для меня очевидно, что именно вы и именно на Сахалине можете сделать большой рывок в новой энергетике. Желаю вам больших успехов, – сказал спе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вопросам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иректор направления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АСИ Дмитрий Песков.

– Мы уже два 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суждаем с командой губернатора глобальные темы. Развитие сфер рыбопереработки, лесопереработки, нефте- и газодобычи, туризм. В общем-то можно весь регион назвать точкой кипения. Много сделано, и многое еще предстоит. Планы большие. Но все зависит не только от нас, но и от вас, молодежи. Именно вы будете двигать экономику в будущем и строить регион и страну. А это место поможет достичь вам успехов, – обратился к студентам минист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Максим Решетников.

«Точка кипения» – это комфортная площадка для коллективной работы, где каждый может бесплат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и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делов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на базе сервиса Leader-ID. Нов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объедини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науки и бизнеса, ученых и студентов,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госслужащих, члено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обществ.

Сегодня в России действуют 119 «Точек кипения». Университетская площадка необходима вузам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инициативы и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развития людей и сообществ,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в работе по профилям своего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площадке упор будет сделан на развитие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развитие технологий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океана: морской робототехники, марикультуры, переработки рыбы, а также декарбонизации экономики и достижения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в 2025 году.

В ходе церемонии был подписан ряд соглашений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развития «Точки кипения». В завершение участники оставили свои напутствия и пожелания будущим поколениям, которые заложили в «Капсулу времен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지역, "극동 연방관구 지역에 대하여(PRODFO)" 포럼 개최

9월 2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방 및 지역 전문가들, 극동 지역의 수장들, 기업 및 대중 대표들이 권력의 생태학, 기업의 생태학, 사회의 생태학 등 세 가지 주요 분야의 환경 문제 해결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포럼에 참여할 수 있었다. 모든 세션은 공개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연사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연금 수급자, '스푸트니크 라이트' 접종 허용

지난 주말부터 사할린주 외래 진료소에서 60세 이상 환자들에게 스푸트니크 라이트의 재 접종이 허용되었다. 이전에는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주민에게만 해당 백신의 재접종이 허용되었지만 백신 정보의 사용 변경이 이루어졌다.

스푸트니크 라이트는 우선적 대기자 명단에 따라 접종한다. 우선 접종자들 외에 주민들은 응급 전화 1-300으로 예약하거나, '고스슬룩' 공식사이트에서 재접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이 가능하지만, 이동접종차량에서는 접종하지 않는다.

제9회 한국식문화세계화대축제, 10월-11월 지역에서 분산 개최

대한민국 한식포럼이 주최해온
대형 한식축제
한식포럼 소개책자도 제작 중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한식을 문화로, 경제로, 세계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매년 진행되고 있는 한국식문화세계화대축제가 올해 9회째를 맞았다.

이 행사를 주최해온 대한민국 한식포럼(회장 문웅선)은 제9회 한국식문화세계화대축제가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각 지역별 전시장소에서 분산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한식포럼은 이 축제를 매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해왔으나, 코로나 상황을 맞아 지난해와 올해 행사는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는 방식을 택했다.

올해 분산 개최되는 전시회에서는 궁중 교방 반가 전통 사찰 약선 발효 김치 향토음식 등 분야별 전시회가 대한민국 한식대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또 식품명인 전시, 기능장 전시, 발표전통장 전시, 천일염, 전통술, 효소, 꽃차, 푸드카빙, 푸드테라피, 한과 등 분야별 전시회 동시에 이뤄진다.

한식포럼 나흥열 사무총장은 "올해의 제9회 축제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현재 연합회 및 음식위원장 단체 등의 전시참가 일정을 조율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웅선 회장은 "포럼회원 간 정보소통 및 교류를 위해 포럼 소개 책자를 제작 중"이라고 밝히고, "11월 중으로 인쇄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 코리안 페스티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가요제" 방송시간대 변경

10월 8일(금) 오후 11시 MBN 방영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주최하는 '2021 코리안 페스티벌 :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가요제'의 방송시간이 10월 8일(금) 오후 11시로 변경됐다.

※ 기존 방송시간 10월 9일(토) 낮 12시부터는 재방송될 예정이다.
'2021 코리안 페스티벌 :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가요제' 무대에 오를 재외동포는 총 11명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등 세계 곳곳의 동포들이 흥과 끼를 발산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천지일보]



울산시, 오는 11월 한·러 지방협력포럼 준비 박차

11월 3~5일 유에코서 열려
추진상황 보고회 등 점검
러시아 18개 지자체 참가

울산시가 오는 11월 열리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조원경 경제부시장 주재로 시 관련부서와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8월 말에 개최된 착수보고회의 후속 조치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행사의 실행계획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관련 기관과 부서의 추진 상황 보고, 의견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사안으로 의전·영접, 회의진행, 홍보,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주요 추진 계획을 종합 점검하고 각 기관의 구체적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서는 양국 지방 간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교류 확대는 물론 북극항로 개설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한다. 특히 양국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 경제협력사업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원경 경제부시장은 "이번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러시아 측 담당부처인 극동북극개발부를 필두로 극동·북극지역 여러 지방정부에서 오프라인 참가 의사를 속속 표명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와 대한민국 외교부의 정기적인 화상회의를 통해 초청, 특별 자가격리면제, 입국, 의전 등을 협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역점을 두고 포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지난 2018년 경북 포항시(1차), 201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2차) 등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도시에서 매년 번갈아 열리고 있다. 제4차 개최지는 러시아 사할린주이다. 울산시가 주최하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 UECO) 등에서 대한민국 17개 시·도 지자체, 러시아 극동·북극지역 18개 지자체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프로젝트 проходи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 культуры,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Ф и входит в официальный перечень мероприятий Года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роекту могут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е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дать заявку для участия можно в период с 1 сентября по 31 октябр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роекта.

Проект предоставляет бесплатный доступ к документальным фильмам 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х для показа. Команда фестиваля подготовила программу из 16 авторских картин, включая российские фильмы "Робот, я люблю тебя?" (2021, Россия), "Пространство Лобачевского" (2019, Россия, Германия). Участники сами определяют подходящие им фильмы и количество показов на их площадках.

Посмотреть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фильмы о космосе, искусственном интеллекте, геномной инженерии, экологии и математике с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все желающие.

В 2020 году в проекте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144 площадки. В связи с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ей Дни научного кино прошли в гибридном формате: онлайн и офлайн. Фильмы собрали более 1,5 млн просмотр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у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и.

코르사코브 주민들, 에이즈 검사 진행

코르사코브시가 '에이즈 검사: 2021- 탐방' 전 러시아 보건부 행사에 합류한 가운데 이동검진차량이 9월 26일(일) 레닌 광장에 배치되었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 에이즈 예방 및

투쟁 센터' 국립 보건기관과 코르사코브 지역 '지역 자치기관들의 사업 공급부'의 사회적 개발관리국 공중보건단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행사는 6년째 지속하고 있으며 전문 의료진이 이동검진차량으로 국내 50개 지역을 이동하고 있다.

"이 활동이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관계로 검진 지역 목록에 5개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미 로스토브주, 코미공화국, 다게스탄,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구 등을 방문했고 사할린주에서 활동이 종료된다."고 '탐방' 심리 상담사 마리나 크루판코가 말했다.

활동의 주요 과제는 에이즈 감염의 실제적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검사를 받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활동은 '우리 함께' 자원봉사단의 참가로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이동검진차량으로 인도했다.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날 청년세대들이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았다. 에이즈 검사 활동 기간 동안 45명이 확진되었는데 코르사코브시에서 32명, 다초노예 마을 '쥘즈니(삶)' 사회 적응 및 재활센터에서 13명이다. 모두 개인적 상담을 받았으며, 의료진들은 이들에게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와 정기적인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었다고 코르사코브시 행정부가 전했다.

Корсаковцы проверили
свой ВИЧ-статус

Корсаков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и "Тест на ВИЧ: Экспедиция-2021". Мобильный пункт тестирования

расположился на площади имени Ленина 26 сентября.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совместно с ГБУЗ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и борьбе со СПИДом" и группо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оровья управл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МКУ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кция проходит уже на протяжении шести лет. В формате автоколонны специалисты передвигаются по 50 регионам страны.

— В связи с большим откликом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внести в этот список еще пять регионов. Мы уже побывали в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е Коми, Дагестане, Ямало-Ненецком автономном округе. Завершится акц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рассказала психолог-консультант "Экспедиции" Марина Крулякко.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граждан по акту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ВИЧ-инфекции и мотивирование их к прохождению обследования. С этим отлично справлялись участники волонтерского клуба "Мы вместе". Они раздавали горожанам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материалы и приглашали в мобильный пункт тестирования.

Пройти анонимное бесплат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мог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Но самыми активными в этот день оказ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За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акции свой ВИЧ-статус узнали 45 человек: в Корсакове — 32, в центре соци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и реабилитации "Жизнь" села Дачного — 13. Все получили индивидуальную консультацию, в ходе которой специалисты доступно рассказывали о путях передачи вируса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егулярн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сообщает корсаков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셀' 회사, 사할린 산림 복구

9월 27일(월),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와 예카테리나 그루셰츠키야 러시아 '셀' 석유회사의 대표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획에 대한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양측 각서의 일환으로 기후와 산림 복구 및 산림 보존의 기획 실행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공동의 관심 분야로서 이산화탄소 저장과 기술적 관리 및 동력 향상과 자원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공학을 연구할 전망이다.

"2025년까지 사할린주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특별 실험의 일환으로 친환경 기술로 전환하는 기업들에게는 사업 동기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세계 시장에서는 친환경 기업의 제품들에게 시세가 매겨지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는 온실가스 흡수 확대와 환경조성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길 원하는 주민들의 관심에 대한 답이며, 사업적으로도 수요가 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이에

"사할린주와 상호 이익의 협력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2009년 러시아에 첫 액화천연가스 공장 건설이다. 각서에 명시된 추진 사항들이 사할린의 동력 산업의 미래 유형을 형성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도록 우리는 이 목표에 매진할 것이다. '셀'회사에게 있어서 이 문서는 중요하다. 왜냐면 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의 회사가 되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전략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셀' 회사 측 예카테리나 그루셰츠키야가 언급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논의하는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오는 10월 4일 서울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전 세계 한인회장 315명 참가 예정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그랜드 워커히 및 대회 홈페이지(hanin2021.co.kr)에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며, 올해에는 더욱 강화된 방역수칙하에서도 오프라인 참가자가 6명(전년 대회)에서 107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대회 및 모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나타내었다.

※ 주최 : 재외동포재단 / 후원 : 외교부

올해는 '하나된 동포, 더 강해진 대한민국'라는 슬로건 아래 68개국 315명의 한인회장이 온·오프라인 형태로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 공동의장은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과 주점식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장이 맡았다.

5일 열리는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정부포상이 있을 계획이며,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식에는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의 축사와 김성곤 이사장의 기조 강연 등이 진행된다.

대회 기간 동안에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0개 지역별 현안 토론회와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되며,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네트워킹 라운지와 유관기관 홍보관이 상시 운영된다.

김성곤 이사장은"본 대회는 전 세계 동포사회의 발전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한인회장이 참석하는 행사"라며 "작년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경험과 실효성을 토대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